



##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축하합니다[양육수료]

기애란 성도 성준원 성도 김민정 성도 정지현 청년 정서현 청년 고진혁 청년

## 3 속회

속회방학 7. 22(월)~8. 17(토)까지 개학 8. 18(주일)

## 4 다음세대 부모특강

일시 오늘(21일) 오후 2시

장소 본당 대상 모든 부모

강사 최은영 교수(횃불트리니티 기독상담학교수)

## 5 창조회복프로젝트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부서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분리수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교역자 복장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노타이 복장을 합니다.

## 7 교역자 휴가

김경현 목사 7. 22일(월) – 27일(토)

## 8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야기

유튜브 임마누엘교회 율현동

인스타 임마누엘교회 율현동

홈페이지 [www.immch.or.kr](http://www.immch.or.kr)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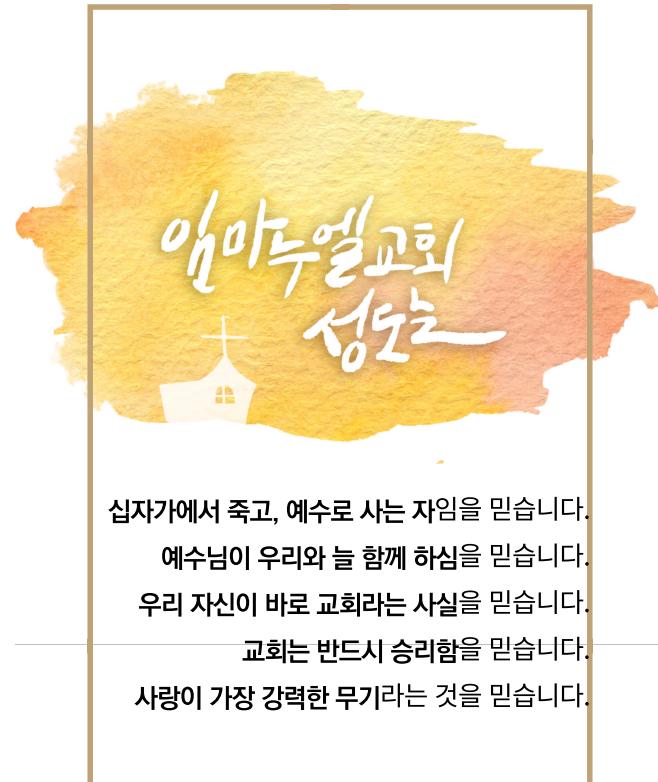


###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봉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이언웅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성경	사도행전 13:13-52(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b>언제까지</b> <b>거부할 것인가</b>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예수 이름 높이세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 주일 대표 기도

7/28 1부 이혜경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8/4 1부 임순희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 열왕기하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 교회, 나의 기도원

화~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정 예 배

##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말씀앞에서



말씀\_사도행전 13:42-52

바보섬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바나바와 바울(이방 사역을 하며 이름이 사울→바울로 바뀌었습니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함께 동행 하던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가가 떠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혐난한 길을 거쳐 소아시아 대륙 안쪽의 비시디아 앤디옥(수리아의 앤디옥과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며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며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42절)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비시디아의 앤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며 비방했습니다.(45절)

이 말씀은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여 배척했습니다.

## 가정예배

그러자 바울과 바나비는 이방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말씀을 배척했으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기뻐했습니다.(48절)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까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따라 늘 은혜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43절)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판단하기 보다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지 판단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에 머무릅시다.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말씀 가운데 스스로 판정하여 믿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온라인 현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현금-김바울감  
주일현금-김바울주 / 선교현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율일 / 건축현금-김바율건